

‘제2의 안치홍’ KIA 루키 경기고 출신 황대인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타율 0.403·홈런 6·OPS 1.277...초대 ‘백인천상’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서 실력·인성 모두 합격점

마무리캠프에서 반짝반짝 빛났던 내야수 황대인(경기고)이 제 2의 안치홍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황대인은 지난 8월 진행된 2015 신인 지명 회의에서 KIA가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른 ‘될성부른 떡잎’이다. KIA가 2009년 서울고 안치홍 이후 6년 만에 2차 1번 카드로 선택한 고졸 야수이기도 하다. 황대인을 우선 부르게 한 배경은 ‘힘’이다. 파워 하나는 고교선수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황대인은 유연함을 겸비했다. 투수로도 활약하며 145km의 공을 뿌릴 정도로 강한 어깨도 가지고 있다. 올 시즌에는 타율 0.403(62타수 25안타) 홈런 6, 타점 23, 도루 5개, OPS(출루율+장타율) 1.277의 성적을 내며 초대 ‘백인천상’의 주인공도 됐다. 황대인은 마무리캠프에서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제 2의 안치홍’으로 기대를 모았다. 코칭스태프로부터 가지고 있는 기술과 힘에서는 프로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세완 타격 코치는 “처음 공을 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스윙 자체가 부드럽고 파워가 상당했다. 이대진 투수 코치에게 한번 공을 던져주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빠르게, 천천히 강약을 조절해서 공을 던졌는데 금방 적응을 해서 쳐냈다. 대처 능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시원시원하니 서글서글한 성격도 황대인의 가치를 더한다. 웃는 얼굴로 힘을 훈련을 이겨내고, 타석에서 기죽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스윙을 가져가는 모습도 코칭스태프가 꼽는 장점이다. 입단 전부터 힘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눈길을 끈 황대인은 마무리 캠프를 통해 프로

무대를 슬쩍 엿봤다. 고교 무대를 평정한 선수지만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황대인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캠프 훈련이 많이 힘들었다. 주루플레이·수비도 차원이 달랐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주루 플레이가 아니었다”고 웃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프로 선배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다는 황대인. “열심히, 많은 훈련을 해서 수비와 주루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자평했지만 힘 하나는 자신 있다. 타격으로 우선 보여주겠다는 황대인은 자신의 장점에 주력해서 프로 무대에 도전할 생각이다. 황대인은 “힘은 자신있다.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우선은 장점을 키우는 쪽으로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다. 내 장점은 방향이, 힘이다. 힘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건창, 고향서 ‘특별상’ 11일 ‘광주 야구인의 밤’

광주 야구인의 밤에서 MVP 서건창(넥센)이 특별상을 받는다. 광주시야구협회(회장 나훈)가 개최하는 ‘2014 야구인의 밤’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6시 상무지구 P&J웨딩홀에서 열린다. 광주일고 출신 서건창은 광주 야구의 자존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는다. 서건창은 0.370의 타율과 함께 프로야구 최다안타신기록(201개), 최다득점(135) 기록을 갈아치우며 2014시즌 프로야구 MVP에 등극했다. 전국대회 우승의 주역인 김지민(화정초), 김도형(서석초), 류민승(송정동초)은 최우수선수상을 받는다. 화정초는 KBO 총재배 유소년 야구대회 백두리그, 서석초는

동해리고 우승을 차지했고 송정동초는 제 44회 회장기 전국초등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을 지휘한 화정초 유종열 감독·서석초 양윤희 감독·송정동초 박태범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받는다. 송정동초 최성민(타율 0.720·25타수 18안타)과 무등중 이동제(타율 0.433·30타수 13안타)는 최우수타격상(협회대상)을 수상한다. 무등중 정영웅(타율 0.407·27타수 11안타)과 학강초 박도현(0.524·21타수 11안타)에게는 우수타격상(동우회대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심판상의 영예는 배성용 심판위원에게 돌아간다. 광주 아마추어 야구의 한 시즌을 돌아보게 될 이날 행사에는 운영위원장 장휘국, 교원감독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장과 야구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감독상 : 유종열(화정초) 양윤희(서석초) 박태범(송정동초) ▲최우수선수상 : 김지민(화정초), 김도형(서석초), 류민승(송정동초) ▲최우수타격상(협회대상): 이동제(무등중), 최성민(송정동고) ▲우수타격상(동우회대상): 정영웅(무등중), 박도현(학강초) ▲최우수심판상: 배성용(광주야구협회심판위원) ▲공로패: 강의선(광주야구협회 감사·광주동성고 교장) 최관준(부회장) 고길식(부회장) 채인기(부회장) 이병엽(경기이사) 송영백(홍보이사) 김필중(이사) 이충효(광주진흥고 교장) 김도영(무등중 교장) 이기성(학강초 교장) ▲감사패 박충근(파스코 대표이사) 안병철(진흥중 학부모회장) ▲특별상: 서건창(넥센 히어로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 ‘일구대상’

서건창 ‘타자상’·양현중 ‘투수상’

리틀야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2014년 일구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일고 출신의 서건창(넥센)과 광주 동성고 출신의 양현중(KIA)은 최고 타자와 최고 투수상을 받았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는 8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2014 일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일구대상은 리틀야구 대표팀(감독 박종욱)에 돌아갔다. 12세 이하

서울시 대표로 꾸려진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세계 강호들을 연파하며 1984·1985년 연속 우승 이후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타율 0.370에 201안타와 135득점을 올려 역대 최초로 200안타를 돌파하고 득점 신기록을 세운 서건창(넥센)과 16승 8패에 평균자책점 4.25를 기록한 양현중(KIA)이 각각 최고 타자와 최고 투수 영예를 안았다. NC 다이노스의 테이베스터

로 활약한 박민우는 신인상을, 삼성 라이온즈를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로 이끈 류중일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2014 일구상 수상자 명단 ▲일구대상 = 2014 리틀야구 대표 ▲최고 타자상 = 서건창(넥센) ▲최고투수상 = 양현중(KIA) ▲신인상 = 박민우(NC) ▲의지 노력상 = 이재원(SK) ▲특별공로상 = 오승환(한신 타이거스) ▲지도자상 = 류중일 감독(삼성) ▲프린트상 = 넥센 히어로즈 ▲심판상 = 박기택 KBO 심판위원 ▲아마 지도자상 = 이효근 마산고 감독. /연합뉴스

토티넘, 손흥민에 ‘눈독’

英 데일리스타 “350억원에 러브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손흥민(레버쿠젠)에 대한 이적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스타는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티넘이 2000만 파운드(약 350억원)의 이적료를 내세워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을 원하는 구단은 토티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등도 다 제대한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특히 “손흥민은 토티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구상하는 영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며 “손흥민의 레버쿠젠 동료인 카림 벨라라비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영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토티넘 영입설이 불거졌고, 2012년 9월에는 리버풀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초반에 두자릿수 득점(11골)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유럽 빅클럽들의 영입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연합뉴스



강정호 포스팅 신청 임박 넥센, 15일 신청

한국 프로야구 출신 야수로는 처음으로 포스팅(비공개 입찰) 시스템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강정호(27·넥센)가 드디어 움직인다. 미국 NBC스포츠는 8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내야수 강정호가 곧 포스팅을 신청한다”며 “강정호 포스팅에 응찰할 구단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센 관계자도 “구단은 이미 여러 차례 강정호의 미국 진출 추진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팅 시점을 놓고 강정호와 상의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넥센은 15일께 포스팅을 신청할 계획이

다. 강정호는 미국 에이전트인 옥타곤과 손잡고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옥타곤은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매리너스), 구로다 히로키(뉴욕 양키스·FA 선언) 등을 보유한 대형 에이전트이다. 옥타곤의 대표 엘런 네로는 한때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에이전트로 활약하기도 했다. 네로는 지난해 “강정호가 쿠바 선수였다면 몸값이 1억 달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직접 강정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